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겸손한 자의 복      성경: 마태복음 8장 1-13절

Tag:

-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8:1-13)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절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간곡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병환자에게 있어서 간곡한 청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과 믿음이 생겼다. 예수님께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에는 나병이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마태복음 8장의 나병환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 환자의 의사 신뢰도는 100%인 셈이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이 나병환자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의지에(의사의 치유의지)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염려는 매우 드문 경우다. 대부분의 경우 병자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순간 치유에 대한 확신이(의사 신뢰도) 50%만 있더라도 강력하게 치유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왜냐면 환자라면 50%의 치유 가능성만 있어도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더구나 무료)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는 마음이 있으실까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예수님의 치유의지)

그렇다면 이 나병환자는 왜 예수님의 치유의지에 대한 열려가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나병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었지 않았을까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였을 것이고, 나병은 거기에 합당한 댓가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준 형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이다. 과연 내가 이제 나아도 될까? 내가 과연 죄값을 다 치룬 것인가?

그래서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이 형벌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 저주를 벗어버리길 원한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망을 하며 체념을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겸손하면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불만이 가득한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으로 군대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다. 같은 내용의 사건에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유대인 친구

를 예수님께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지워버리고 기록하고 있다.(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한 편집의도에서)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친근하게 지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그 지역의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과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상종하기를 꺼리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병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도 아닌, 고작 하인의 질병으로 이렇게까지 찾아온 백부장의 정성에 감동하셨다.

그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다. 그러자 백부장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황송해 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인데, 수고를 끼쳐드릴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를 명령하시면 나올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창조적 영성이 회복된다.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방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다.

구태의연한 생각이라는 방에는 율법주의라는 이름의 문이 있다.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있을 때 믿음의 문은 창조적인 생각의 방으로 열리게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열었던 문이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깜짝 놀랐다. 과연 이 이방인에게 이런 문이 열리다니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특히 1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당하는 저주에 대해서 주목하자.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사모했으며, 스스로는 이방인이어서 과연 내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겸손한 자에게 믿음까지 더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창조적 영성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영성이라 생각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생활에 힘쓰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나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인가?

성경: 마태복음 7장7-12절

Tag: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범이요 선지자니라 (마 7:7-12)

장군은 양수점장이어야 이길 수 있다. 외통수.

그런데 살다보면 나의 인생도 외통수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꿈쩍 없이 걸려들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통수로 설계하지 않으셨고, 혹 그런 외통수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대부분의 외통수는 인생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인생관이 바뀌면 그것은 외통수가 아니라는 것.

심지어는 그 외통수가 사실은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언제 인생관이 바뀌는가?

급할 때, 위기 의식을 느꼈을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할 때 인생관이 바뀐다.

진리를 갈망할 때, 무엇이 해답인지에 대해서 갈망할 때, 인생은 바뀐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전지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후히 대하시는 분, 친절하신 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멀리 끌어내기 위해서 짐짓 패하는 척 도망하니, 아이성 사람들이 맹 추격을 하였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매복군이 손쉽게 성을 접수하고 성에 불을 질렀다.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군은 뒤돌아서서 아이성 군대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고 성 문은 굳게 닫혔다. 아이성 사람들은 진퇴양난임을 깨닫게 되어 겁에 질려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탐욕이었음이 밝혀짐.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교만한 맘으로 삼천명만 아이성에 파송함.

-그러나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눅3:16)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눅7:6)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눅7:7)